



[경제종합] 부릉 대신 따릉 친환경 전기자전거 혁신 이동수단 부상 04



Life

[라이프] 냉장고서 꺼내면 자동결제 주류 무인판매 눈길 나



# “리오프닝, 중·소형주 주목... 본격 상승 시점은 9월 말”

##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 주식투자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여행·항공 등 리오프닝 주목 기회 올 것 업종 흐름보다 개별 종목에 집중해야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실적개선주 가운데 종목을 선별해 내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장기투자 관점에서 주가가 과하다 싶을 때는 조절하다 주가가 쌀 때 공격적으로 매수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20일 메트로경제가 주최한 ‘2021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에서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윤 센터장은 “내년까지 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서 리오프닝(경기 재개)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 중 엔터주와 중·소형주 중 성장성이 있으면서 밑바탕이 되는 것들이 치고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 ◆변동성 장세 포트폴리오 전략 잘 짜야

증시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개인투자자 사이에 선 ‘눈치 보기’ 장세가 한창이다.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론, 코로나19차 대우행, 글로벌 인플레이



션(물가 상승) 우려 등 주변 환경과 관련한 여러 요인이 충돌하면서다.

윤 센터장도 이에 동감했다. 그는 “한 달 전부터 광장한 종목 장이 열렸다”며 “2차전지, 엔터주 등 중·소형주와 대형주 상관없이 시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지수도 고점을 경신했지만 강하게 올라가는 장이라고 볼 순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는 금리가 낮았을 때 보강돼 온 유동성 장세가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시기로 판단된다”며 “한동안은 유동성에 의해 실적을 당겨쓰다 보니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이기에 쉽지 않았다”고 했다.

윤 센터장은 두 가지 핵심으로 ‘중·소형주’와 ‘리오프닝’을 꼽았다. 중·소형주의 활발한 움직임

은 대형주의 부진하고도 연동된다.

그는 “시가총액 상위 20종목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상당히 높게 유지됐다”며 “플랫폼 경제 등 여러 기대감 때문에 고점을 넘길 수 있다는 애기도 들리는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PBR 상승률을 추격하지 못하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다. 이전 코로나19 반등 장세에서는 PBR이 고점에 달했을 때 ROE가 18% 가까이 치솟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 최근 대형주의 부진은 이 같은 이유로 해석된다.

리오프닝 종목의 본격적인 상승 시점은 오는 9월 말로 예상했다. “여행, 항공, 유통, 화장품 등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코로나19가 통제되는 때 분명 기회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소프트웨어·자동차 유망...업종보다 개별종목

그가 주목한 업종은 소프트웨어와 자동차다. 장기투자 측면에서는 현대차를 제시했다. 대신 지수상단이 크게 열려 강한 실적 장세로 갈 경우를 전제로 달았다.

윤 센터장은 “수출증가율 둔화와 달러 강세가 나타나며 대형주보다는 5조원 미만 중·소형주가 좋아지는 시기”라며 “정보기술(IT)주가 올라오고 있고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미디어가 좋다”고 추천했다.

다만 전반적인 업종 흐름을 쫓기 보다는 개별 종목에 집중할 것을 권했다.

윤 센터장은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은 올라가는 데 어떤 종목은 안 올라가는 특이한 장세”라며 “각 개격과 느낌이어서 주도 업종을 꼽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경제가 확 좋아지진 않을 것인 만큼 경영진이 바뀌거나, 공장을 폐쇄하는 등 변화가 있는 기업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윤 센터장은 “100세 전략으로 주식투자는 해야 한다”면서도 “주식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사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장이 아니다. 남들이 하니 까 급한 마음에 사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 때 좋은 기업을 사두는 게 장기투자자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시작점이 중요한 만큼 아직 주식 시작을 하지 않았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사전증여 통해 부동산 절세전략 세워야”

##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 부동산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재산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증여 유리 세금 부담에 사전증여 수요 늘어날 것

호지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세금”이라며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부동산 절세전략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지영 세무사는 20일 메트로경제 주최로 웨비나로 진행된 ‘2021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강연에서 “집값이 오를수록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며 사전 증여를 서두르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다주택자 세 부담 증가...양도보다 증여

호 세무사는 “주택수를 조정해서 보유세 부담을 줄일 생각이 있다면 사전 증여 필요성을 고려해 양도도 같이 증여로 갈지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해두어야 한다”며 “재산이 일정 규모를 넘지 않는다면 상속이 더 유리하고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우려된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쪼개는 게 좋다”고 전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발표되면서 세금에 대한 규제도 커졌다, 특히 다주택자 중심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따라서 호 세무사가 제시한 다주택자의 선택지는 4가지다. 보유, 임대주택 등록, 양도, 증여 등이다. 그러나 보유세와 양도의 경우 세금 부담이 늘고 있는데 임대주택 세제 혜택은 축소됐기 때문

에 그는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증여를 최선의 선택지로 들었다.

### ◆단계별 전략 제시, 사전 증여 필요성 증가

그는 단계별로 절세전략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세가지 전략은 ▲예상되는 보유세 부담 계산 ▲합산배제 가능 주택 판단 ▲셋째 주택 수 조정 시 절세효과 판단 등이다.

호 세무사는 “반포자이와 상계주공7단지 아파트 2채를 15년 보유하고 과세표준이 7억5000만원이라고 가정 했을 때 양도의 경우 세율은 62%가 되면서 세금은 약 4억원에 이르는 반면 증여의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돼 약 1억4500만원, 취득세 4200만원의 세금이 나온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어지면서 사전증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 “디지털자산, 가능성 열어두고 관심 가져야”

##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 가상화폐

고란 알고란 대표

가상화폐 규제에도 기업들 연이은 투자 디지털자산 가치부여 'NFT', 새 가능성

가상화폐(가상자산) 시장이 연초 대비 투자 열기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가능성을 열어 두고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메타버스 등 가상화폐와 연관된 디지털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채테크 수단으로 활용 필요성이 있다는 것.

고란 알고란 대표는 20일 메트로경제가 웨비나로 개최한 ‘2021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에서 이 같이 조언했다.

### ◆규제에 흔들리는 가상화폐...그럼에도 기업은 투자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주도의 가상화폐에 대해 각국에서 규제를 가하는 이유는 국가의 발권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인도, 터키 등 여러 국가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규제 강도가 거세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시세가 국내에서는 3000만 원대 후반, 달러 기준으로는 3만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기업들의 연이은 투자가 뒷받침



고 있다고 전했다. 고 대표는 “최근 상장사, 비상장사, 상장지수펀드(ETF) 형태로 비트코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한 미나스닥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경우는 빛

을 쬐가면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으며, 이 외에도 테슬라, 스쿼어, 넥슨 등 기업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 ◆NFT 전성시대...새로운 자본의 탄생

가상화폐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에 주목했다. NFT는 특정 자산을 디지털화해, 거래를 편하게 만들고 디지털화된 자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고 대표는 NFT의 블록체인과 자산 토큰화를 통해 그동안 기록되지 못하고, 거래되지 못한 이른바 ‘죽은 자산’에 활력을 넣어 새로운 자산형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 대표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NFT 가상화폐 중 하나인 액시인피니티(AXS)는 최근 일주일간 상승률이 100%가 넘는 등 강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영석기자 ysl@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K리그1 대구FC, 브라질 MF 라마스 영입 /사진 뉴시스  
▲KBO, 코로나 감염우려로 올스타·라이징스타전 취소 검토 중

▲프로야구 KT 4명·NC 1명, 코로나19 추가 확진  
▲바흐 IOC 위원장 “전 세계인이 일본인 칭찬할 것”



▲청주시청 장애인사격부 3명, 도쿄패럴림픽 출전권 획득 /사진 뉴시스  
▲EPL 에버턴 스타 선수,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